

김옥채 사무총장,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 축사 관련

현지 언론 보도 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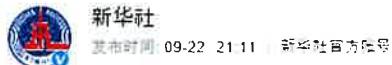
2021.10.14(목)

번호	보도기관	보도일	제목
1	언론	신화사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 “창춘창의”를 통해 동북아 해양경제협력권 공동 건설 강조
2		신랑재경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 “창춘창의”를 통해 동북아 해양경제협력권 공동 건설 강조
3		중국청년넷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 “창춘창의”를 통해 동북아 해양경제협력권 공동 건설 강조
4		왕이넷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 “창춘창의”를 통해 동북아 해양경제협력권 공동 건설 강조
5		중공넷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 “창춘창의”를 통해 동북아 해양경제협력권 공동 건설 강조
6		중국신문넷	동북아 지방정부, “동북아 해양경제협력권” 건설 방안 모색
7		동방재부넷	동북아 지방정부, “동북아 해양경제협력권” 건

			설 방안 모색
8	텅쉰넷	2021.9.22	동북아 지방정부, “동북아 해양경제협력권” 건설 방안 모색
9	평파이신문	2021.9.22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 탁회의 창춘에서 개최
10	동아시아경제무역신문	2021.9.22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 탁회의 창춘에서 개최, 한진 성장 참석 및 기조연설
11	중국신문넷 지린채널	2021.9.23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 탁회의 창춘에서 개최
12	인민넷	2021.9.23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 탁회의 창춘에서 개최
13	지린일보	2021.9.26	시대 흐름에 맞는 실무 협력 강화, 동북아의 더 나은 미래 공동 건설
14	중국신문넷 지린채널	2021.10.8	태국 경화일보, 동북아 지방협력원 탁회의 개최, “해양경제협력권” 건설
15	글로벌경제신문넷	2021.10.12	“창춘 컨센서스”에서 “창춘창의”까지, 블루옵션의 새로운 항로 개척

<신화사에 김옥채 사무총장의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 원탁회의 축사 소개 기사 게재:  
2021.9.22>

## 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发布《长春倡议》呼吁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



新华社长春 9月 22 日电（记者高楠、邵美琦）22日在吉林省长春市举行的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发布《长春倡议》，呼吁东北亚区域各地方政府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是第十三届中国—东北亚博览会重要活动之一，来自包括中国、日本、韩国、俄罗斯、蒙古国、朝鲜在内的东北亚六国代表参加，围绕共同加强东北亚地区地方政府合作交流、互学互鉴、经贸往来以及推动地区和平稳定、繁荣发展等问题进行深入探讨。

东北亚区域海陆相连，海洋资源丰富，以海洋为载体和纽带的市场、技术、信息、文化等合作日益紧密。《长春倡议》提出，各地方以本次会议为契机，继续秉承平等互信、包容互鉴的理念，推动宽领域、多层次的海洋合作，携手打造开放合作新平台，共同驶入深耕蓝海新征程，共同创造后疫情时代东北亚区域海洋经济美好未来。

《长春倡议》还提出，各地方聚力打造高效便捷的区域互联互通网络，共同推动通道“硬件”设施建设，合力攻坚制约瓶颈，持续加大区域海空航线及路网密度，支持现有各类物流网络常态化稳定高效运行，共同为实现东北亚区域海洋经济合作圈互联互通创造有利条件。

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秘书长金玉彩表示，仅依靠一个国家或一个地区的力量无法实现建设海洋经济圈的目的，只有依靠国际合作才能不断克服挑战，实现可持续发展。（完）

<https://baijiahao.baidu.com/s?id=1711607764647130746&wfr=spider&for=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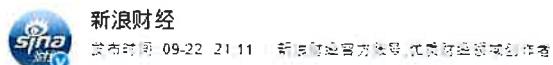
### ○ 주요 내용

-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가 9월 22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는 「창춘창의」 발표를 통해 동북아 지방정부들이 시장자원을 연계하여 해양경제협력권 건설을 함께 추진할 것을 강조함.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김옥채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해양경제권 조

성 사업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국제적 공조와 협력만이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함.

<신랑재경에 김옥채 사무총장의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 원탁회의 축사 소개 기사 게  
재: 2021.9.22>

## 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发布《长春倡议》呼吁共 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



来源：新华社

原标题：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发布《长春倡议》呼吁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

新华社长春 9 月 22 日电（记者高楠、邵美琦）22 日在吉林省长春市举行的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发布《长春倡议》，呼吁东北亚区域各地方政府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是第十三届中国—东北亚博览会重要活动之一，来自包括中国、日本、韩国、俄罗斯、蒙古国、朝鲜在内的东北亚六国代表参加，围绕共同加强东北亚地区地方政府合作交流、互学互鉴、经贸往来以及推动地区和平稳定、繁荣发展等问题进行深入探讨。

东北亚区域海陆相连，海洋资源丰富，以海洋为载体和纽带的市场、技术、信息、文化等合作日益紧密。《长春倡议》提出，各地方以本次会议为契机，继续秉承平等互信、包容互鉴的理念，推动宽领域、多层次的海洋合作，携手打造开放合作新平台，共同驶入深耕蓝海新征程，共同创造后疫情时代东北亚区域海洋经济美好未来。

《长春倡议》还提出，各地方聚力打造高效便捷的区域互联互通网络，共同推动通道“硬件”设施建设，合力攻坚制约瓶颈，持续加大区域海空航线及路网密度，支持现有各类物流网络常态化稳定高效运行，共同为实现东北亚区域海洋经济合作圈互联互通创造有利条件。

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秘书长金玉彩表示，仅依靠一个国家或一个地区的力量无法实现建设海洋经济圈的目的，只有依靠国际合作才能不断克服挑战，实现可持续发展。（完）

<https://baijiahao.baidu.com/s?id=1711611032812255207&wfr=spider&for=pc>

### ○ 주요 내용

-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가 9월 22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는 「창춘장의」 발표를 통해 동북아 지방정부들이 시장자원을 연계하여 해양경제협력권 건설을 함께 추진할 것을 강조함.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김옥채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해양경제권 조성 사업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국제적 공조와 협력만이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함.

<중국청년넷에 김옥채 사무총장의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 원탁회의 축사 소개 기사  
개재: 2021.9.22>



## 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发布《长春倡议》 呼吁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

发稿时间: 2021-09-22 22:06:00 来源: 新华网

新华社长春9月22日电（记者高楠、邵美琦）22日在吉林省长春市举行的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发布《长春倡议》，呼吁东北亚区域各地方政府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是第十三届中国—东北亚博览会重要活动之一，来自包括中国、日本、韩国、俄罗斯、蒙古国、朝鲜在内的东北亚六国代表参加，围绕共同加强东北亚地区地方政府合作交流、互学互鉴、经贸往来以及推动地区和平稳定、繁荣发展等问题进行深入探讨。

东北亚区域海陆相连，海洋资源丰富，以海洋为载体和纽带的市场、技术、信息、文化等合作日益紧密。《长春倡议》提出，各地方以本次会议为新契机，继续秉承平等互信、包容互鉴的理念，推动宽领域、多层次的海洋合作，携手打造开放合作新平台，共同驶入深耕蓝海新征程，共同创造后疫情时代东北亚区域海洋经济美好未来。

《长春倡议》还提出，各地方聚力打造高效便捷的区域互联互通网络，共同推动通道“硬件”设施建设，合力攻坚制约瓶颈，持续加大区域海空航线及路网密度，支持现有各类物流网络常态化稳定高效运行，共同为实现东北亚区域海洋经济合作圈互联互通创造有利条件。

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秘书长金玉彩表示，仅依靠一个国家或一个地区的力量无法实现建设海洋经济圈的目的，只有依靠国际合作才能不断克服挑战，实现可持续发展。

[http://news.youth.cn/gj/202109/t20210922\\_13232038.htm](http://news.youth.cn/gj/202109/t20210922_13232038.htm)

## ○ 주요 내용

-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가 9월 22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는 「창춘창의」 발표를 통해 동북아 지방정부들이 시장자원을 연계하여 해양경제협력권 건설을 함께 추진할 것을 강조함.
  -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의 김옥채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해양경제권 조성 사업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국제적 공조와 협력만이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함.

<왕이넷에 김옥채 사무총장의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 원탁회의 축사 소개 기사 게재:  
2021.9.22>

网易首页 > 网易号 > 正文

申请入驻 >

## (经济) 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发布《长春倡议》呼吁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

2021-09-22 21:14:15 来源 新华社

链接

新华社长春9月22日电（记者高楠、邵美琦）22日在吉林省长春市举行的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发布《长春倡议》，呼吁东北亚区域各地方政府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是第十三届中国—东北亚博览会重要活动之一，来自包括中国、日本、韩国、俄罗斯、蒙古国、朝鲜在内的东北亚六国代表参加，围绕共同加强东北亚地区地方政府合作交流、互学互鉴、经贸往来以及推动地区和平稳定、繁荣发展等问题进行深入探讨。东北亚区域海陆相连，海洋资源丰富，以海洋为载体和纽带的市场、技术、信息、文化等合作日益紧密。《长春倡议》提出，各地方以本次会议为契机，继续秉承平等互信、包容互鉴的理念，推动宽领域、多层次的海洋合作，携手打造开放合作新平台，共同驶入深耕蓝海新征程，共同创造后疫情时代东北亚区域海洋经济美好未来。

《长春倡议》还提出，各地方聚力打造高效便捷的区域互联互通网络，共同推动通道“硬件”设施建设，合力攻坚制约瓶颈，持续加大区域海空航线及路网密度，支持现有各类物流网络常态化稳定高效运行，共同为实现东北亚区域海洋经济合作圈互联互通创造有利条件。

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秘书长金玉彩表示，仅依靠一个国家或一个地区的力量无法实现建设海洋经济圈的目的，只有依靠国际合作才能不断克服挑战，实现可持续发展。（完）

<https://www.163.com/dy/article/GKHELB1805346RC6.html>

### ○ 주요 내용

-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가 9월 22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는 「창춘창의」 발표를 통해 동북아 지방정부들이 시장자원을 연계하여 해양경제협력권 건설을 함께 추진할 것을 강조함.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김옥채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해양경제권 조성 사업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국제적 공조와 협력만이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함.

<중공넷에 김옥채 사무총장의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 원탁회의 축사 소개 기사 게재:  
2021.9.22>

## 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发布《长春倡议》呼吁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

 中工网  
发布时间: 09-22 22:13 中工网

来源：新华社

原标题：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发布《长春倡议》 呼吁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

新华社长春 9 月 22 日电（记者高楠、邵美琦）22 日在吉林省长春市举行的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发布《长春倡议》，呼吁东北亚区域各地方政府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是第十三届中国—东北亚博览会重要活动之一，来自包括中国、日本、韩国、俄罗斯、蒙古国、朝鲜在内的东北亚六国代表参加，围绕共同加强东北亚地区地方政府合作交流、互学互鉴、经贸往来以及推动地区和平稳定、繁荣发展等问题进行深入探讨。

东北亚区域海陆相连，海洋资源丰富，以海洋为载体和纽带的市场、技术、信息、文化等合作日益紧密。《长春倡议》提出，各地方以本次会议为新契机，继续秉承平等互信、包容互鉴的理念，推动宽领域、多层次的海洋合作，携手打造开放合作新平台，共同驶入深耕蓝海新征程，共同创造后疫情时代东北亚区域海洋经济美好未来。

《长春倡议》还提出，各地方聚力打造高效便捷的区域互联互通网络，共同推动通道“硬件”设施建设，合力攻坚制约瓶颈，持续加大区域海空航线及路网密度，支持现有各类物流网络常态化稳定高效运行，共同为实现东北亚区域海洋经济合作圈互联互通创造有利条件。

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秘书长金玉彩表示，仅依靠一个国家或一个地区的力量无法实现建设海洋经济圈的目的，只有依靠国际合作才能不断克服挑战，实现可持续发展。

责任编辑：石婷钰

<https://baijiahao.baidu.com/s?id=1711611577128925864&wfr=spider&for=pc>

### ○ 주요 내용

-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가 9월 22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는 「창춘장의」 발표를 통해 동북아 지방정부들이 시장자원을 연계하여 해양경제협력권 건설을 함께 추진할 것을 강조함.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김옥채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해양경제권 조성 사업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국제적 공조와 협력만이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함.

<중국신문넷에 김옥채 사무총장의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 원탁회의 축사 소개 기사  
제작: 2021.9.22>

## 东北亚地方政府共谋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



中国新闻网

发布时间 09-22 20:43 | 中国新闻网官方帐号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 22 日在长春举行。 郭佳 摄

中新网长春 9 月 22 日电 (记者 郭佳)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 22 日在吉林长春举行。与会各方希望打造一个“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推动东北亚区域地方合作朝着更高质量方向前进。

中国、朝鲜、日本、韩国、蒙古国、俄罗斯等国政府官员参加了当天的会议。会议以“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为主题，各方围绕经贸投资、互联互通、海洋经济、节能环保、文化旅游等多领域合作交换了意见。

东北亚地区六国人口占全球人口 23%，区域 GDP 占全球经济总量 19%，是全球发展最具活力的地区之一。东北亚地区海陆相连，海洋资源丰富，以海洋为纽带的市场、技术、信息、文化等合作日益紧密。

吉林省省长韩俊在作主旨发言时表示，各方要围绕海洋科技、海洋开发、海洋保护等相关领域展开务实合作，携手开发珲春海洋经济发展示范区，打造海洋合作平台，要推动基础设施互联互通，推动开通航线拓展容量、测试航线顺利通航、停滞航线尽早复航。

韩俊说，吉林省正在推进“滨海 2 号”珲春至扎鲁比诺港铁路及公路建设改造，为沿边沿线城市架设开放合作桥梁。

俄罗斯滨海边疆区第一副州长维拉·谢尔比娜说，“滨海1号”“滨海2号”国际运输走廊途经符拉迪沃斯托克自由港，将中国吉林省、黑龙江省与滨海边疆区的海港相连。海洋运输需要船舶，滨海边疆区的造船和修船企业与中国、韩国的伙伴已经合作多年。

维拉·谢尔比娜还提出将旅游合作列为海洋合作的重要组成部分。她说，滨海边疆区已经与亚太地区最大邮轮运营商建立了稳定的合作伙伴关系，相信疫情限制解除后，邮轮能再次连接起符拉迪沃斯托克与日本、韩国和中国的海港。

日本长崎县副知事平田研表示，长崎县是日本屈指可数的三面环海的海洋县之一，曾是日本唯一对外开放的窗口，凭借地理优势培养发展了造船产业，现在该县正充分利用造船业积累的优秀技术发展海洋能源产业这一新的支柱产业，希望与会各方能前来洽谈合作。

韩国全罗南道也对发展海洋能源产业颇感兴趣。全罗南道知事金英录介绍，目前，全罗南道正在计划建造世界上规模最大的海上风力发电场。

韩国驻沈阳总领事馆总领事崔斗锡认为，扩大东北亚地区国家之间的合作，应当以东北亚地方政府为主导，通过经济、教育、文化、体育等软性交流，构建自下而上的合作发展模式，希望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发展成为自下而上的合作平台，进而推动中央政府之间的合作。

东北亚地区地方政府合作联合会秘书长金玉彩介绍，该联合会自1996年由中、日、韩、俄的29个地方政府共同创立以来，一直致力于通过地方政府间合作，实现东北亚地区共同繁荣，现如今，联合会已经拥有79个会员，成长为名副其实的国际化多边合作交流平台。

“建设海洋经济圈仅靠一个国家或一个地区的力量是无法实现的，只有国际合作才能不断克服挑战，实现可持续发展。”金玉彩说，想要发展可持续的、面向未来的合作伙伴关系，仅单纯依靠商品、资本、服务等物质层面交流是不够的，还需要共同努力打造真诚沟通与交流的平台。

当天，与会各方还在上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长春共识》基础上，达成了《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长春倡议》，相约不断加强海洋经济等方面的合作，不断加强互联互通，进一步推动贸易自由化、便利化。(完)

<https://baijiahao.baidu.com/s?id=1711606306830790573&wfr=spider&for=pc>

## ○ 주요 내용

-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가 9월 22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개최됨.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대표들은 “시장 자원 연계를 통한 동북아해양경제협력권 공동 건설”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김옥채 사무총장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지역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1996년 중

국, 일본, 한국, 러시아에서 29개 광역 지방정부가 참가하여 출범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79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동북아 지역의 명실상부한 다자간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해양경제권 조성 사업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국제적 공조와 협력만이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상품, 자본, 서비스와 같은 물질적인 측면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한 소통과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해야한다.”고 언급함.

- 러시아연해변경주 제1부지사, 일본 나가사키현 부지사, 한국 전라남도 지사, 주선양 한국총영사 연설 내용 소개

<동방재부넷에 김옥채 사무총장의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 원탁회의 축사 소개 기사  
기재: 2021.9.22>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Dongfang Money'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网站首页', '加收藏', '移动客户端', '东方财富', '天天基金网', '东方财富证券', '东方财富期货', 'Choice数据', '股吧', '登录', '我的东早', '证券交易', and '基金交易'. Below the navigation bar is a red promotional banner for 'Hafu Securities APP' with text '投资知名港美股 就用哈富证券APP' and a download button.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news article titled '东北亚地方政府共谋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 (Northeast Asian local governments jointly plan to build the "Northeast Asian Marine Economic Cooperation Circle"). The article includes a photo of a document, the date '2021年09月22日 20:48', the author '范佳', the source '中国新闻网', and 186 comments. There are also social sharing icons at the bottom.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 22 日在吉林长春举行。与会各方希望打造一个“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推动东北亚区域地方合作朝着更高质量方向前进。

中国、朝鲜、日本、韩国、蒙古国、俄罗斯等国政府官员参加了当天的会议。会议以“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为主题，各方围绕经贸投资、互联互通、海洋经济、节能环保、文化旅游等多领域合作交换了意见。

东北亚地区六国人口占全球人口 23%，区域 GDP 占全球经济总量 19%，是全球发展最具活力的地区之一。东北亚地区海陆相连，海洋资源丰富，以海洋为纽带的市场、技术、信息、文化等合作日益紧密。

吉林省省长韩俊在作主旨发言时表示，各方要围绕海洋科技、海洋开发、海洋保护等相关领域展开务实合作，携手开发珲春海洋经济发展示范区，打造海洋合作平台，要推动基础设施互联互通，推动开通航线拓展容量、测试航线顺利通航、停滞航线尽早复航。

韩俊说，吉林省正在推进“滨海 2 号”珲春至扎鲁比诺港铁路及公路建设改造，为沿边沿线城市架设开放合作桥梁。

俄罗斯滨海边疆区第一副州长维拉·谢尔比娜说，“滨海 1 号”“滨海 2 号”国际运输走廊途经符拉迪沃斯托克自由港，将中国吉林省、黑龙江省与滨海边疆区的海港相连。海洋运输需要船舶，滨海边疆区的造船和修船企业与中国、韩国的伙伴已经合作多年。

维拉·谢尔比娜还提出将旅游合作列为海洋合作的重要组成部分。她说，滨海边疆区已经与亚太地区最大邮轮运营商建立了稳定的合作伙伴关系，相信疫情限制解除后，邮轮能再次连接起符拉迪沃斯托克与日本、韩国和中国的海港。

日本长崎县副知事平田研表示，长崎县是日本屈指可数的三面环海的海洋县之一，曾是日本唯一对外开放的窗口，凭借地理优势培养发展了造船产业，现在该县正充分利用造船业积累的优秀技术发展海洋能源产业这一新的支柱产业，希望与会各方能前来洽谈合作。

韩国全罗南道也对发展海洋能源产业颇感兴趣。全罗南道知事金英录介绍，目前，全罗南道正在计划建造世界上规模最大的海上风力发电场。

韩国驻沈阳总领事馆总领事崔斗锡认为，扩大东北亚地区国家之间的合作，应当以东北亚地方政府为主导，通过经济、教育、文化、体育等软性交流，构建自下而上的合作发展模式，希望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发展成为自下而上的合作平台，进而推动中央政府之间的合作。

东北亚地区地方政府合作联合会秘书长金玉彩介绍，该联合会自1996年由中、日、韩、俄的29个地方政府共同创立以来，一直致力于通过地方政府间合作，实现东北亚地区共同繁荣，现如今，联合会已经拥有79个会员，成长为名副其实的国际化多边合作交流平台。

“建设海洋经济圈仅靠一个国家或一个地区的力量是无法实现的，只有国际合作才能不断克服挑战，实现可持续发展。”金玉彩说，想要发展可持续的、面向未来的合作伙伴关系，仅单纯依靠商品、资本、服务等物质层面交流是不够的，还需要共同努力打造真诚沟通与交流的平台。

当天，与会各方还在上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长春共识》基础上，达成了《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长春倡议》，相约不断加强海洋经济等方面的合作，不断加强互联互通，进一步推动贸易自由化、便利化。(完)

<http://finance.eastmoney.com/a/202109222113533942.html>

## ○ 주요 내용

-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가 9월 22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개최됨.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대표들은 “시장 자원 연계를 통한 동북아 해양경제협력권 공동 건설”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김옥채 사무총장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지역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에서 29개 광역 지방정부가 참가하여 출범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79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동북아 지역의 명실상부한 다자간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해양경제권 조성 사업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국제적 공조와 협력만이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선 상품, 자본, 서비스와 같은 물질적인 측면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한 소통과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함.

- 러시아연해변경주 제1부지사, 일본 나가사키현 부지사, 한국 전라남도 지사, 주선양 한국총영사 연설 내용 소개

<텅쉰넷에 김옥채 사무총장의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 원탁회의 축사 소개 기사 게재:  
2021.9.22>



要闻 娱乐 财经 体育 图片 时尚

## 东北亚地方政府共谋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

2021  
09/22  
20:45

中国新闻网  
企鹅号

分享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22日在长春举行。 郭佳 摄

中新网长春9月22日电 (记者 郭佳)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22日在吉林长春举行。与会各方希望打造一个“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推动东北亚区域地方合作朝着更高质量方向前进。

中国、朝鲜、日本、韩国、蒙古国、俄罗斯等国政府官员参加了当天的会议。会议以“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为主题，各方围绕经贸投资、互联互通、海洋经济、能源环保、文化旅游等多领域合作交换了意见。

东北亚地区六国人口占全球人口23%，区域GDP占全球经济总量19%，是全球发展最具活力的地区之一。东北亚地区海陆相连，海洋资源丰富，以海洋为纽带的市场、技术、信息、文化等合作日益紧密。

吉林省省长韩俊在作主旨发言时表示，各方要围绕海洋科技、海洋开发、海洋保护等相关领域展开务实合作，携手开发珲春海洋经济发展示范区，打造海洋合作平台，要推动基础设施互联互通，推动开通航线拓展容量、测试航线顺利通航、停滞航线尽早复航。

韩俊说，吉林省正在推进“滨海2号”珲春至扎鲁比诺港铁路及公路建设改造，为沿边沿线城市架设开放合作桥梁。

俄罗斯滨海边疆区第一副州长维拉·谢尔比娜说，“滨海1号”“滨海2号”国际运输走廊途经符拉迪沃斯托克自由港，将中国吉林省、黑龙江省与滨海边疆区的海港相连。海洋运输需要船舶，滨海边疆区的造船和修船企业与中国、韩国的伙伴已经合作多年。

维拉·谢尔比娜还提出将旅游合作列为海洋合作的重要组成部分。她说，滨海边疆区已经与亚太地区最大邮轮运营商建立了稳定的合作伙伴关系，相信疫情限制解除后，邮轮能再次连接起符拉迪沃斯托克与日本、韩国和中国的海港。

日本长崎县副知事平田研表示，长崎县是日本屈指可数的三面环海的海洋县之一，曾是日本唯一对外开放的窗口，凭借地理优势培养发展了造船产业，现在该县正充分利用造船业积累的优秀技术发展海洋能源产业这一新的支柱产业，希望与会各方能前来洽谈合作。

韩国全罗南道也对发展海洋能源产业颇感兴趣。全罗南道知事金英录介绍，目前，全罗南道正在计划建造世界上规模最大的海上风力发电场。

韩国驻沈阳总领事馆总领事崔斗锡认为，扩大东北亚地区国家之间的合作，应当以东北亚地方政府为主导，通过经济、教育、文化、体育等软性交流，构建自下而上的合作发展模式，希望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发展成为自下而上的合作平台，进而推动中央政府之间的合作。

东北亚地区地方政府合作联合会秘书长金玉彩介绍，该联合会自1996年由中、日、韩、俄的29个地方政府共同创立以来，一直致力于通过地方政府间合作，实现东北亚地区共同繁荣，现如今，联合会已经拥有79个会员，成长为名副其实的国际化多边合作交流平台。

“建设海洋经济圈仅靠一个国家或一个地区的力量是无法实现的，只有国际合作才能不断克服挑战，实现可持续发展。”金玉彩说，想要发展可持续的、面向未来的合作伙伴关系，仅单纯依靠商品、资本、服务等物质层面交流是不够的，还需要共同努力打造真诚沟通与交流的平台。

当天，与会各方还在上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长春共识》基础上，达成了《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长春倡议》，相约不断加强海洋经济等方面的合作，不断加强互联互通，进一步推动贸易自由化、便利化。(完)

<https://new.qq.com/omn/20210922/20210922A0E89400.html>

## ○ 주요 내용

-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가 9월 22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개최됨.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대표들은 “시장 자원 연계를 통한 동북아 해양경제협력권 공동 건설”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김옥채 사무총장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지역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에서 29개 광역 지방정부가 참가하여 출범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79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동북아 지역의 명실상부한 다자간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해양경제권 조성 사업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국제적 공조와 협력만이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상품, 자본, 서비스와 같은 물질적인 측면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한 소통과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해야한다.”고 언급함.
- 러시아연해변경주 제1부지사, 일본 나가사키현 부지사, 한국 전라남도 지사, 주선양 한국총영사 연설 내용 소개

<평파이신문에 김옥채 사무총장의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 원탁회의 참석 기사 게재:  
2021.9.22>



精选 视频 时事 财经 澎湃号 思想 生活 战疫 问吧 订阅

##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长春举行

2021-09-22 22:51 来源：澎湃新闻·澎湃号·政务

字号



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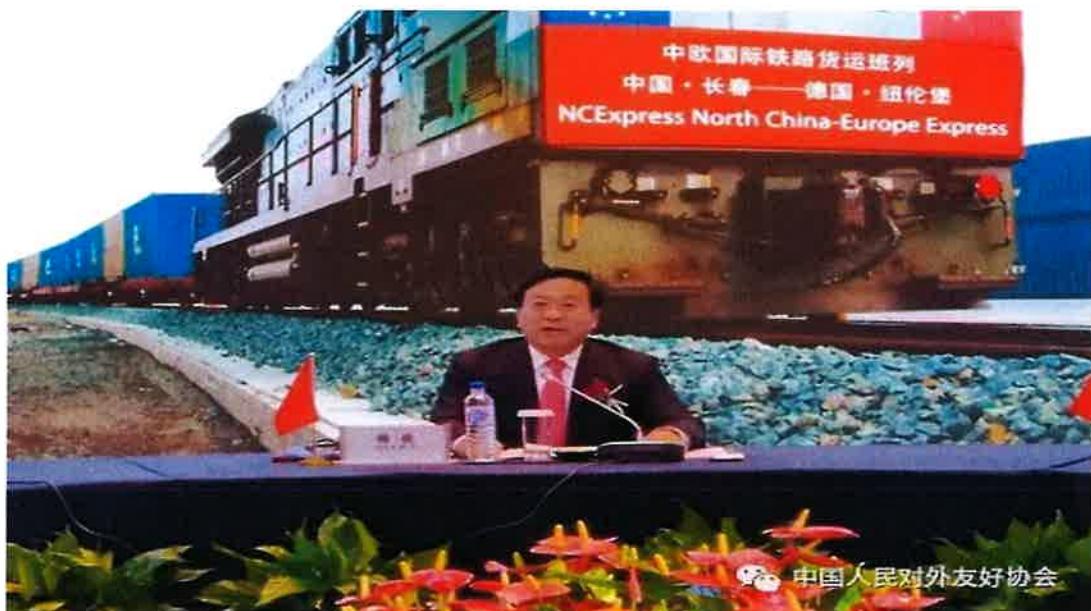
+ 关注

9月22日下午，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与吉林省人民政府、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将在长春市共同举办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会议采取“线下+录播”方式，主题为“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吉林省省长韩俊、全国对外友协副会长林怡、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秘书长金玉彩，吉林、天津、辽宁、浙江等中国相关省市和朝、日、韩、蒙、俄等有关国家地方政府首脑和驻华使节等共约140人出席。与会各方围绕共同加强东北亚地区地方政府合作交流、互学互鉴、经贸往来以及推动地区和平稳定、繁荣发展等问题进行深入探讨，一致通过了成果性文件《长春倡议》。



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

韩俊在致辞中表示，2019年首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成功举办，推动形成了东北亚区域地方合作新的平台和机制。两年来，我们开展多层次交流互访，拓展国际友城“朋友圈”，推动开通海运陆运新航线，高效落地合作项目，积极开展体育文化交流活动。特别是2020年抗击新冠肺炎疫情以来，我们守望相助、共克时艰，创新沟通方式，互赠防疫物资，生动体现了“山川异域、风月同天”的美好情谊。东北亚地区六国人口占全球人口23%，国内生产总值占全球经济总量19%，交往历史悠久，经贸合作频繁，是全球最具活力、最具潜力、最具影响力的区域之一，也是世界经济重要增长引擎。期待与会各方共同努力，增进互信交流，打造和谐幸福的东北亚；深化区域合作，打造互利共赢的东北亚；深耕海洋经济，打造互联互通的东北亚；致力互学互鉴，打造文化融合的东北亚；完善长效机制，打造紧密合作的东北亚。



林怡在致辞中表示，中方高度重视东北亚区域合作。今年9月3日，习近平主席在第六届东方经济论坛全会上发表题为《携手谱写远东合作新篇章》的重要讲话，呼吁东北亚区域各方在应对疫情挑战方面相互助力，在推进互利合作方面持续发力，在维护地区和平稳定方面形成合力，为促进区域睦邻友好与和平发展指明了方向。

林怡说，当前世界面临百年变局和世纪疫情双重考验，不确定不稳定因素显著增加。新冠肺炎疫情是人类共同面临的全球性挑战，国际社会只有团结合作，才能战而胜之。个别域外国家出于维护自身霸权地位需要，将疫情政治化、病毒标签化、溯源工具化，严重背离了世界发展大势和科学真理，不利于全球经济复苏和联合抗疫，对此我们坚决反对。东北亚各国地方应团结应对疫情，共同推进区域经济持续复苏；深化互利合作，共同推进区域发展与繁荣；加强人文交流，共同推进区域人民“民相亲、心相通”，携手开创东北亚区域合作更加美好的明天。

与会各方代表分别介绍了各自开展东北亚地方合作的情况，纷纷表示受新冠肺炎疫情影响，各国交流活动受限，本次会议在此背景下召开，意义十分重大。作为世界三大经济中心之一，东北亚区域贸易总量占世界的 19%，可以说，东北亚区域经济的迅速增长，带动着世界经济的发展。东北亚六国地方政府应携手努力，排除干扰，增进互信，共同应对疫情挑战，深化各领域互利合作，不断做大共同利益的蛋糕，同时进一步打造真诚沟通与交流的平台，加强人文交流，实现民心相通，共同推动东北亚区域地方合作迈上新台阶。

附件：

####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

#### 长春倡议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于 2021 年 9 月 22 日在中华人民共和国吉林省长春市召开。与会各方以“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为主题，围绕共同加强东北亚地区地方政府合作交流、互学互鉴、经贸往来以及推动地区和平稳定、繁荣发展等问题进行深入探讨，并形成以下倡议：

一、我们倡导不断深化区域海洋经济务实合作。各地方以本次会议为新契机，继续秉承平等互信、包容互鉴的理念，推动宽领域、多层次的海洋合作，携手打造开放合作新平台，共同驶入深耕蓝海新航程，共同创造后疫情时代东北亚区域海洋经济美好未来。

二、我们倡导大力推动互联互通基础设施共建共享。各地方聚力打造高效便捷的区域互联互通网络，共同推动通道“硬件”设施建设，合力攻坚制约瓶颈，持续加大区域海空航线及路网密度，支持现有各类物流网络常态化稳定高效运行，共同为实现东北亚区域海洋经济合作圈互联互通创造有利条件。

三、我们倡导有效夯实区域经贸交流合作根基。各地方充分释放资源“红利”，积极整合市场需求，加强数字化交流合作，持续节能减排，共同推进“碳达峰、碳中和”目标，不断推动贸易和投资自由化、便利化，把资源、区位优势转化成共同的经济、发展优势，加强绿色农业、能源开发、海洋渔业、码头装备、生态旅游等领域产业交流合作，共享蓝色经济发展成果，共同驱动高质量发展“蓝色引擎”，共同推动区域合作水平再上新台阶。

四、我们倡导充分发挥人文交流纽带桥梁作用。各地方加强政府、民间、智库、媒体、青少年等多领域交流交往，增进理解，彼此关切，充分发挥地缘相近、人缘相亲、情感相融优势，拉近友好感情，拉紧“蓝色伙伴”之手，助力东北亚地区人文交流合作。

五、我们倡导着力巩固提升圆桌会议机制建设。各地方共同推动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机制化、长效化，一致同意第三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于 2023 年在长春市举行，共商东北亚地方各领域交流合作大计，共谋区域经济发展，共享东北亚区域海洋经济圈成果。

让我们携起手来，共谋合作、共商发展、共建未来、共享成果！

2021 年 9 月 22 日

王磊 摄

原标题：《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长春举行》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4620813](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4620813)

## ○ 주요 내용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지린성인민정부가 9월 22 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함. 이번 회의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김옥채 사무총장, 지린성 한쥔 성장, 전국대외우호협회 이린 부회장, 그리고 지린성, 텐진시, 랴오닝성, 저쟝성 등 중국 관련 성시 대표와 북한,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관련국가 지방정부 대표 및 주중 사절단 140여명이 참석함.
- 한쥔 성장과 이린 부회장 연설 내용 소개
- 이번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창춘창의” 내용 소개

<동아시아경제무역신문에 김옥채 사무총장의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 원탁회의 축사  
소개 기사 게재: 2021.9.22>

##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长春召开 韩俊出席会议并作主旨讲话



东亚经贸新闻

发布时间 09-22 23:23 来源: 东亚经贸新闻报社官方账号,本资讯创作者

#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长春召开 顺应时代潮流 加强务实合作 携手开创东北亚地区更加美好的明天

## 韩俊出席会议并作主旨讲话

9月22日，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长春召开，全面贯彻习近平主席关于加强东北亚区域合作的重要指示精神，以“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为主题，聚焦经贸投资、互联互通、海洋经济、能源环保、文化旅游等多领域，深入交流合作，携手推动东北亚地区繁荣发展。省委书记、省长韩俊出席会议并作主旨讲话。



9月22日，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长春召开。宋锴 摄



百家号/东亚经贸新闻

省委副书记、省长韩俊作主旨讲话。宋锴 摄

韩俊指出，东北亚地区各国交往历史悠久，经贸合作频繁，是全球最具活力、最具潜力、最具影响力的区域之一，也是世界经济重要增长引擎。两年前，首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顺利召开，形成了新的合作平台和机制，推动区域合作取得新成就。吉林省地处东北亚腹地，是中国重要的老工业基地、商品粮基地和人文科教大省，正在持续扩大改革开放，加快互联互通和平台建设，大力发展开放型经济，全力打造中国向北开放的重要窗口和东北亚地区合作中心枢纽。

韩俊提出五点合作倡议：

一是增进互信交流，打造安全稳定的东北亚。坚持和平发展理念，“与邻为善、以邻为伴”，照顾彼此关切，常交流、常对接、常互动，携手应对疫情，努力营造和睦友好的发展环境。

二是深化区域合作，打造互利共赢的东北亚。深化战略对接，积极融入“一带一路”建设，拓展汽车、清洁能源、矿业、农业、医药健康、旅游康养等领域合作。推动贸易和投资便利化，促进各方市场、资本、技术流动，不断提升区域合作水平，努力构建东北亚经济圈。

三是深耕海洋经济，打造互联互通的东北亚。探索区域海洋合作新模式，携手开发珲春海洋经济发展示范区等合作平台，推动基础设施互联互通，推动开通航线拓展容量、测试航线顺利通航、停滞航线尽早复航。

四是致力互学互鉴，打造文化融合的东北亚。加强文化交流、体育互动、人才合作、青少年交往，抢抓2022年北京冬奥会机遇，合作发展冰雪运动、冰雪旅游、冰雪文化、冰雪装备，引领冰雪经济发展潮流。

五是完善长效机制，打造紧密合作的东北亚。完善常态化合作机制，支持“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常态化、规范化、机制化，推动各类国际经济合作区、产业园区、国际合作示范区等平台建设，建立视频

会见、连线通话等沟通机制，推动各层次各领域顺畅联系，促进各类合作项目尽快落地落位、加快实施。

吉林省副省长李伟主持会议。全国友协副会长林怡、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秘书长金玉彩、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副秘书长白范钦致辞。天津市副市长王旭、朝鲜驻沈阳总领事具永赫、日本驻沈阳总领馆副总领事杉田雅彦、韩国驻沈阳总领事崔斗锡、蒙古国驻华使馆参赞钢·苏布达苏仁、俄罗斯驻沈阳总领事谢尔盖·契尔年科致辞，朝鲜咸镜北道、罗先特别市，日本鸟取县、宫城县、岛根县、广岛县、长崎县、秋田县，韩国江原道、全罗南道、忠清南道、庆尚北道，蒙古中央省、达尔汗乌勒省，俄罗斯堪察加边疆区、滨海边疆区、马加丹州、阿尔泰边疆区政府代表发言，围绕会议主题，深入交换意见，探讨务实合作的路径。

会上，各国地方政府代表一致通过《长春倡议》。长春市市长王子联，吉林省政府秘书长安桂武参加会议。

来源：吉林省人民政府网（王旭 于小博）

<https://baijiahao.baidu.com/s?id=1711616020911083568&wfr=spider&for=pc>

## ○ 주요 내용

-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가 9월 22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시장 지원 연계를 통한 동북아 해양경제협력권 공동 건설”을 주제로 개최됨.
- 지린성 한진 성장의 기조연설 내용 소개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김옥채 사무총장, 중국 전국우호협회 린이 부회장 등이 축사함.
- 이번 회의에서 “창춘창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함.

<중국신문넷 지린채널에 김옥채 사무총장의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 원탁회의 축사 소개 기사 게재: 2021.9.23>

中国新闻网 | 吉林  
www.jl.chinanews.com 吉林新闻网

2021年10月14日 星期四 上  
午 9:09:16

搜索

首页 吉林要闻 视点 环球热点 国内要闻 图说吉林 时政聚焦 财经报道 社会民生 科教文卫 深度观察 特别关注  
热点专题 人参专栏 高层论坛 吉林旅游 人事变动 名企推介 港澳台侨 民俗风情 健康在线 地产楼市 文萃交流 百味人生  
行业荟萃 汽车产业 在线直播

滚动新闻：季度中国全社会用电量同比增12.9%·香港特区政府拟将香港国安法纳入新聘公务员考核·珲春县税务局：税局“复合型”催生金牌农产品·呼应来到四平调研民乐工

编者推荐

您当前的位置-->首页-->吉林要闻

##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长春召开

发布时间:2021年09月23日 09:17



9月22日，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长春召开。吉林日报记者 宋锴 摄

今天(9月22日)，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长春召开，全面贯彻习近平主席关于加强东北亚区域合作的重要指示精神，以“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为主题，聚焦经贸投资、互联互通、海洋经济、能源环保、文化旅游等多领域，深入交流合作，携手推动东北亚地区繁荣发展。省委副书记、省长韩俊出席会议并作主旨讲话。

韩俊指出，东北亚地区各国交往历史悠久，经贸合作频繁，是全球最具活力、最具潜力、最具影响力的区域之一，也是世界经济重要增长引擎。两年前，首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顺利召开，形成了新的合作平台和机制，推动区域合作取得新成就。吉林省地处东北亚腹地，是中国重要的老工业基地、商品粮基地和人文科教大省，正在持续扩大改革开放，加快互联互通和平台建设，大力发展战略性新兴产业，全力打造中国向北开放的重要窗口和东北亚地区合作中心枢纽。

韩俊提出五点合作倡议，一是增进互信交流，打造安全稳定的东北亚。坚持和平发展理念，“与邻为善、以邻为伴”，照顾彼此关切，常交流、常对接、常互动，携手应对疫情，努力营造和睦友好的发

展环境。二是深化区域合作，打造互利共赢的东北亚。深化战略对接，积极融入“一带一路”建设，拓展汽车、清洁能源、矿业、农业、医药健康、旅游康养等领域合作。推动贸易和投资便利化，促进各方市场、资本、技术流动，不断提升区域合作水平，努力构建东北亚经济圈。三是深耕海洋经济，打造互联互通的东北亚。探索区域海洋合作新模式，携手开发珲春海洋经济发展示范区等合作平台，推动基础设施互联互通，推动开通航线拓展容量、测试航线顺利通航、停滯航线尽早复航。四是致力互学互鉴，打造文化融合的东北亚。加强文化交流、体育互动、人才合作、青少年交往，抢抓2022年北京冬奥会机遇，合作发展冰雪运动、冰雪旅游、冰雪文化、冰雪装备，引领冰雪经济发展潮流。五是完善长效机制，打造紧密合作的东北亚。完善常态化合作机制，支持“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常态化、规范化、机制化，推动各类国际经济合作区、产业园区、国际合作示范区等平台建设，建立视频会见、连线通话等沟通机制，推动各层次各领域顺畅联系，促进各类合作项目尽快落地落位、加快实施。

吉林省副省长李伟主持会议。全国友协副会长林怡、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秘书长金玉彩、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副秘书长白范钦致辞。天津市副市长王旭、朝鲜驻沈阳总领事具永赫、日本驻沈阳总领馆副总领事杉田雅彦、韩国驻沈阳总领事崔斗锡、蒙古国驻华使馆参赞钢·苏布达苏仁、俄罗斯驻沈阳总领事谢尔盖·契尔年科致辞，朝鲜咸镜北道、罗先特别市，日本鸟取县、宫城县、岛根县、广岛县、长崎县、秋田县，韩国江原道、全罗南道、忠清南道、庆尚北道，蒙古国中央省、达尔汗乌勒省，俄罗斯堪察加边疆区、滨海边疆区、马加丹州、阿尔泰边疆区政府代表发言，围绕会议主题，深入交换意见，探讨务实合作的路径。

会上，各国地方政府代表一致通过《长春倡议》。长春市市长王子联，吉林省政府秘书长安桂武参加会议。

【原标题：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长春召开 顺应时代潮流加强务实合作 携手开创东北亚地区更加美好的明天 韩俊出席会议并作主旨讲话】

(来源：吉林日报)

(编辑：王思博)

<http://www.jl.chinanews.com.cn/jlyw/2021-09-23/171387.html>

## ○ 주요 내용

-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가 9월 22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시장 지원 연계를 통한 동북아 해양경제협력권 공동 건설”을 주제로 개최됨.
- 지린성 한진 성장의 기조연설 내용 소개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김옥채 사무총장, 중국 전국우호협회 린이 부회장 등이 축사함.
- 이번 회의에서 “창춘창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함.

<인민넷에 김옥채 사무총장의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 원탁회의 축사 소개 기사 게재:  
2021.9.23>



首页 党政 ▾ 要闻 ▾ 观点 ▾ 互动 ▾ 可视化 ▾ 地方 ▾ 举报专区 多语言 ▾ 合作网站 ▾ [人民日报客户端](#) 三 [登录](#)

人民日报 > 吉林日报

##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长春召开

2021年09月23日08:29 | 来源：[吉林日报](#)

原标题：顺应时代潮流加强务实合作 携手开创东北亚地区更加美好的明天



9月22日，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长春召开。（记者宋锴摄）

9月22日，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长春召开，全面贯彻习近平主席关于加强东北亚区域合作的重要指示精神，以“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为主题，聚焦经贸投资、互联互通、海洋经济、能源环保、文化旅游等多领域，深入交流合作，携手推动东北亚地区繁荣发展。省委副书记、省长韩俊出席会议并作主旨讲话。

韩俊指出，东北亚地区各国交往历史悠久，经贸合作频繁，是全球最具活力、最具潜力、最具影响力的区域之一，也是世界经济重要增长引擎。两年前，首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顺利召开，形成了新的合作平台和机制，推动区域合作取得新成就。吉林省地处东北亚腹地，是中国重要的老工业基地、商品粮基地和人文科教大省，正在持续扩大改革开放，加快互联互通和平台建设，大力发展战略性新兴产业，全力打造中国向北开放的重要窗口和东北亚地区合作中心枢纽。

韓俊提出五点合作倡议，一是增进互信交流，打造安全稳定的东北亚。坚持和平发展理念，“与邻为善、以邻为伴”，照顾彼此关切，常交流、常对接、常互动，携手应对疫情，努力营造和睦友好的发展环境。二是深化区域合作，打造互利共赢的东北亚。深化战略对接，积极融入“一带一路”建设，拓展汽车、清洁能源、矿业、农业、医药健康、旅游康养等领域合作。推动贸易和投资便利化，促进各方市场、资本、技术流动，不断提升区域合作水平，努力构建东北亚经济圈。三是深耕海洋经济，打造互联互通的东北亚。探索区域海洋合作新模式，携手开发珲春海洋经济发展示范区等合作平台，推动基础设施互联互通，推动开通航线拓展容量、测试航线顺利通航、停滞航线尽早复航。四是致力互学互鉴，打造文化融合的东北亚。加强文化交流、体育互动、人才合作、青少年交往，抢抓2022年北京冬奥会机遇，合作发展冰雪运动、冰雪旅游、冰雪文化、冰雪装备，引领冰雪经济发展潮流。五是完善长效机制，打造紧密合作的东北亚。完善常态化合作机制，支持“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常态化、规范化、机制化，推动各类国际经济合作区、产业园区、国际合作示范区等平台建设，建立视频会见、连线通话等沟通机制，推动各层次各领域顺畅联系，促进各类合作项目尽快落地落位、加快实施。

吉林省副省长李伟主持会议。全国友协副会长林怡、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秘书长金玉彩、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副秘书长白范钦致辞。天津市副市长王旭、朝鲜驻沈阳总领事具永赫、日本驻沈阳总领馆副总领事杉田雅彦、韩国驻沈阳总领事崔斗锡、蒙古国驻华使馆参赞钢·苏布达苏仁、俄罗斯驻沈阳总领事谢尔盖·契尔年科致辞，朝鲜咸镜北道、罗先特别市，日本鸟取县、宫城县、岛根县、广岛县、长崎县、秋田县，韩国江原道、全罗南道、忠清南道、庆尚北道，蒙古国中央省、达尔汗乌勒省，俄罗斯堪察加边疆区、滨海边疆区、马加丹州、阿尔泰边疆区政府代表发言，围绕会议主题，深入交换意见，探讨务实合作的路径。

会上，各国地方政府代表一致通过《长春倡议》。长春市市长王子联，吉林省政府秘书长安桂武参加会议。（记者王旭 于小博）

<http://jl.people.com.cn/n2/2021/0923/c349771-34925819.html>

## ○ 주요 내용

-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가 9월 22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시장 지원 연계를 통한 동북아 해양경제협력권 공동 건설”을 주제로 개최됨.
- 지린성 한진 성장의 기조연설 내용 소개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김옥채 사무총장, 중국 전국우호협회 린이 부회장 등이 축사함.
- 이번 회의에서 “창춘창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함.

<지린일보에 김옥채 사무총장의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 원탁회의 축사 소개 기  
사 게재: 2021.9.26>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Jilin Daily website (JILINRIBAO.COM). At the top, there is a red banner with the text "学习贯彻党的十九届五中全会精神" (Study and Implement the Spirit of the Fifth Plenary Session of the 19th CPC Central Committee) and a yellow hammer and sickle logo. Below the banner, the main headline reads "顺应时代潮流加强务实合作 携手开创东北亚地区更加美好的明天" (Adhere to the trend of the times, strengthen pragmatic cooperation, and work together to create a better future for the Northeast Asia region). The article is attributed to "吉林省委副书记、省长 韩俊" (Vice书记 and Governor of Jilin Province, Han Jun). The text discusses the second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Local Cooperation Roundtable and its focus on connectivity and pragmatic cooperation. The page also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newspaper's front page from September 26, 2021, which includes the same headline and some smaller text. There are also promotional banners for education and other local news.

四、致力互学互鉴，打造文化融合的东北亚。东北亚各国地域相近，文化相融，民心相通，各国人民在长期交往中结下了深厚友谊。我们要加强文化交流，让各国人民享受不同风格的文化盛宴，从中寻求智慧、汲取营养，提高文明认同感，巩固传统友谊，携手解决地区合作发展共同面临的各种挑战。我们要加强体育互动，抢抓2022年北京冬奥会机遇，合作发展冰雪运动、冰雪旅游、冰雪文化、冰雪装备，引领冰雪经济发展新潮流。我们正在开展“冬奥在北京·体验在吉林”系列活动，打造“带动三亿人参与冰雪运动”重要载体，希望更多借鉴东北亚各国发展冰雪旅游、冰雪体育等宝贵经验，期待各方积极参与、共建共享、合作共赢。我们要加强人才合作，继续在互派公务员、国际交流和留学生等方面扩大规模、加密频次、提高质量，让各类人才获得更多创新创业空间，更好地实现人才价值。我们要加强青少年交往，增进了解，传承友谊，承载希望，让青少年成为东北亚地区合作的参与者、支持者、贡献者。

五、完善长效机制，打造紧密合作的东北亚。面对东北亚地区合作新形势新机遇新任务，各方应该主动适应新发展阶段，在《长春共识》基础上，完善常态化合作机制，构建区域发展新优势。我们要建立健全协商机制，巩固原有沟通渠道，期待各方支持“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常态化、规范化、机制化，不断凝聚发展共识，聚焦合作重点，拓展对话领域，深化务实合作，推动达成《长春倡议》，持续推进共识落地见效。我们要搭建区域合作平台，期待各方积极推动各类国际经济合作区、产业园区、国际合作示范区等平台建设，加强技术转移、产能合作、贸易互通，推动各领域合作共识落实到平台上、园区中、项目上，推动区域合作走深走实。我们要保持密切互动，疫情阻碍了拥抱握手，但不能阻断彼此关爱，心心相连，要建立视频会见、连线通话等沟通机制，创造条件推动多层次、各领域保持顺畅联系，促进各类合作项目尽快落地落位、加快实施。

开放合作是当今世界的主旋律，是当今世界的最强音，更是我们的共同诉求和愿望。让我们顺应时代变化，始终与时俱进，加强务实合作，携手开创东北亚地区合作更加美好的明天！

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秘书长 金玉彩

我谨代表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对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我联合会的重要成员吉林省成功举办，表示衷心祝贺。受新冠疫情影响，各国交流活动受限，本次会议在这样的背景下召开，意义十分重大。

吉林省自2014年加入联合会以来，通过举办东北亚地区国际人才交流合作会议，为增进东北亚地区地方政府间交流合作作出了突出贡献。

吉林省通过建设“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等一系列对外开放项目，在国内外树立了扩大开放、引领成长的模范标杆，为促进东北亚地区的国际合作、实现共同繁荣，吉林省努力前行，始终如一，联合会对此给予高度评价。

东北亚地区作为世界三大经济中心之一，地区贸易总量占世界的19%，东北亚地区经济的迅速增长，带动着世界经济的发展。

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成立于1996年，始终致力于通过地方政府间合作，已经拥有包括朝鲜和蒙古国在内的6个国家79个会员，成长为名副其实的国际化多边合作交流平台。今年8月10日，联合会举办了主题为“同行25年，共创东北亚未来”的第13次全体会议，约定共同开启下一个25年征程。

当前，想要发展可持续的、面向未来的合作伙伴关系，仅单纯依靠商品、资本、服务等物质层面交流是不够的，我们还需要共同努力，进一步打造真诚沟通与交流的平台，实现民心相通。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是本次会议的重要议题，我认为仅依靠一个国家或一个地区的力量是无法实现这个目标的，只有依靠国际合作才能不断克服挑战，实现可持续发展。

衷心希望本次会议围绕海洋经济合作，包括新海洋科学技术产业、海洋旅游业等热烈探讨，取得显著成效。期待以本次会议成果为基础，东北亚地区海洋经济领域合作更上一层楼。

中日韩合作秘书处副秘书长 白范钦

非常荣幸出席第二届东北亚地方政府合作圆桌会议。感谢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吉林省人民政府的邀请。在疫情仍在全球蔓延的情况下，能以线上方式与东北亚六国的使领馆、地方政府、企业及学术界的代表们共聚一堂，探讨东北亚海洋经济发展，我深感欣慰。在此，感谢主办单位为筹办此次会议付出的积极努力和辛勤劳动。

在2019年召开的第一届圆桌上，各方就东北亚地方政府加强合作达成共识。本届会议基于上届会议的良好成果，在全球关注蓝色经济的大背景下，就“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进行深入探讨，恰逢其时。疫情为全球海上经贸活动带来挑战，六国地方政府共商后疫情时代的海洋经贸合作意义重大。期待与会嘉宾利用此次会议充分交流，建言献策。

海洋在渔业、航运、能源、旅游等领域为周边各国创造了新的商业以及就业机会，提供了新的经济增长空间。东北亚地区海洋资源丰富，为了让海洋释放出全部潜力，各方需协力利用创新技术合理开发和保护海洋生态环境，巩固海洋经济的可持续发展。同时，各方应共同维护东北亚地区的稳定，推动海洋资源开发及经济合作，造福东北亚各国人民。

东北亚地区除中日韩合作秘书处外，已有多个区域和次区域交流机制，包括大图们倡议(GTI)、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NEAR)、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中日韩地方政府交流会议、西北太平洋行动计划(NOWPAP)、东亚经济交流推进机构(OEAED)等，在经贸、交通、旅游、环境等众多领域推动国家间和地方间的合作与友好交流。期待东北亚地方政府合作圆桌会议和即将通过的《长春倡议》为区域合作提供新的动力。

推动地方政府合作是秘书处的重点工作之一。秘书处将继续与各方保持紧密合作，致力于东北亚地区的和平与繁荣发展。相信本届圆桌会议将富有成效，预祝会议取得圆满成功！

朝鲜驻沈阳总领事馆总领事 具永赫

今天，第二届东北亚地方政府合作圆桌会议盛大召开，我非常高兴第二次出席圆桌会议。同时，向吉林省政府致以深深谢意。

中国吉林省与朝鲜接壤，是朝鲜的好邻居。长期以来，朝鲜咸镜北道、慈江道、罗先市等边境道市发挥地理优势，巩固朝中传统友谊，先后与吉林省建立了友好关系，多层次、多角度开展紧密交流与合作。朝鲜地方道市与吉林省在多领域合作空间很大，有利条件非常多。

目前，朝鲜正致力于发展广泛的对外经济关系，积极、持续推进与国际间的经济贸易活动。为促进经济发展、提高人民生活质量，朝鲜积极深化与中国等国家经济交流，先后在边境地区等地设立了20多个经济开发区，同时制定了利于保证外国投资者权力和利益的法律法规，并不断完善补充。对投资经济开发区基础设施建设、生产尖端科学技术产品及具有世界竞争力商品的企业，在土地利用、税收缴纳等方面给予特殊优惠政策。

蔓延全球的新冠疫情阻碍了人员交流和往来，但朝中两国珍视传统友谊，进一步深化地区间合作的意志和合作热情更加高涨。在朝中两国元首引领下，两国友好关系不断迈向更高阶段。

朝鲜驻沈阳总领事馆将秉承朝中两国元首倡导的合作精神，进一步发挥桥梁纽带作用，进一步推动朝鲜和吉林省之间的交流与合作。

我们希望，吉林省能够一如既往地推动朝中友好关系发展，加强地区间往来交流，深化合作发展。

最后，衷心祝愿吉林省在以尊敬的习近平同志为核心的中共中央的英明领导下，在实施新东北振兴战略和实现社会主义现代化建设目标的奋斗中，取得丰硕成果。预祝本次圆桌会议和中国—东北亚博览会圆满成功。

朝鲜咸镜北道人民委员会委员长 朴万浩

真诚感谢吉林省人民政府邀请我方参加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此向共同致力于东北亚地区繁荣和发展的各国代表致以诚挚的问候。

东北亚地区拥有辽阔的土地、众多的人力资源、丰富的自然财富、便利的交通运输条件，发展经济的区位优势明显。东北亚国家地方政府以平等、互惠为原则，一直积极致力于加强经济合作和地区发展繁荣。我们将积极与吉林省以及其他东北亚地区政府加强经济合作与交流，不断完善法律法规、营造良好的法律环境，努力推动共同发展。

今年年初，朝鲜劳动党制定了对外经济工作的科学战略，确定了发展目标。朝鲜将发展和扩大对外经济关系、多角度开展对外贸易，灵活推进经济开发工作。今年是朝鲜国家经济发展五年规划的开局之年，朝鲜人民在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长金正恩同志的英明领导下，正全力以赴投身于完成首年任务、大力提高人民生活水平的斗争中。

朝鲜咸镜北道与中国吉林省接壤，是亲密的邻居，在经济、文化等各领域不断加强多方面交流与合作，双方友谊得到进一步巩固。我们高兴地看到，在以尊敬的习近平同志为核心的中国共产党领导下，中国人民高举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进入了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的新的历史征程，取得了卓越的成就。

今天，朝中友谊正在两国最高领导人正确引领下，向着更高阶段发展升华。今后，我们将继续秉承两国最高领导人的崇高意志，为继续巩固和发展传统的朝中友谊作出积极努力。

我相信，本次会议将成为东北亚国家创造美好新世界、互相交换见解的契机，祝愿东北亚未来无限光明。

朝鲜罗先市人民委员会委员长 申昌日

在纪念中国共产党建党100周年意义深远的日子里，第十三届中国—东北亚博览会和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中国吉林省长春市隆重举行，对此我感到非常高兴，向邀请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罗先市的吉林省人民政府致以深深的谢意，向出席本次会议的东北亚地区各国代表和国际机构代表致以亲切的问候。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将成为本地区国家和地方政府间增进互信、促进合作，加快发展各领域交流与合作的重要契机。

东北亚地区丰富的资源、庞大的市场、便利的海上通道等区位优势，吸引了世界各国广泛关注。东北亚地区已经成为连通市场和资源、未来可期的重要地区。

罗先经济贸易区位于东北亚的中心、图们江沿岸，是朝鲜设立的第一个特殊经济贸易区，与中国吉林省珲春市和俄罗斯滨海边疆区哈桑区隔江相望，海路可与世界许多国家相通，是连接陆路和海路的重要节点，备受世界关注。朝鲜设立罗先经济贸易区后，积极推进法律法规建设，营造良好的法律环境，为活跃地区经济、推动东北亚地区实现可持续发展奠定了坚实基础。今后，我们将秉持自主、和平、友好的理念，与中国等东北亚国家和地方政府广泛建立友好合作关系。

我相信，本次会议将成为东北亚地区地方政府间谋求友好、实现共赢、提升地方合作水平的重要契机。祝愿繁荣昌盛的东北亚未来无限光明。

日本驻沈阳总领事馆副总领事 杉田雅彦

在全球新冠疫情背景下，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仍然隆重召开。我谨向为筹办本次会议付出辛勤努力的吉林省各有关人士表示由衷敬意。

日本政府除了以WTO为中心的多边贸易体制外，还在缔结推进各国贸易投资自由化和便利化的协定。今后，在东北亚区域合作中抑制贸易投资领域的保护主义，推进法律稳定性可预见性贸易投资自由化，对东北亚各国经济持续增长也是不可或缺的。

2020年11月，由日本、中国、韩国、“东盟十国”、澳大利亚和新西兰等国签署的RCEP，是一项占世界GDP、贸易总额、人口近30%，占日本贸易总额近50%，包括东北亚区域贸易投资在内的自由贸易协定。RCEP对于促进区域性贸易投资和供应链的有效运转，改善市场准入，完善各个国家间知识产权、电商交易等领域规则，具有重要意义。

在此自由贸易协定框架的基础上，为了推进实质性的东北亚区域合作，日本和具有与日本经贸往来的有关各国间需要以可持续的方式，促进和发展双边、多边互惠的经贸投资、商务合作。

在东北亚区域合作方面，日中关系是最重要的双边关系之一，与中国的稳定关系不仅对两国，对地区和国际社会都非常重要。日本和中国东北三省建立了78对友城关系，出席今天会议的日本宫城县、鸟取县、岛根县也都和吉林省建立了友好关系。2022年是日中邦交正常50周年，期待日中友好城市除经贸领域外，也要在教育文化、环保等广泛领域深化互惠合作。

日本鸟取县知事 平井伸治

鸟取县位于西日本地区，自古以来与中国交往密切。自然旅游、美食等资源丰富，县内漫画家众多，是闻名的“漫画王国”。鸟取县与吉林省以及东北亚地区积极开展国际交流活动，建立了深厚的友谊。

自1994年鸟取县与吉林省缔结友好关系以来，在诸多领域加深了交流。2018年10月，鸟取县出席了纪念日中和平友好条约缔结40周年招待会，与吉林省签署了《鸟取·吉林ADAS-EV项目合作备忘录》，建立了自动驾驶和电动汽车领域合作。通过参展东北亚博览会等活动，进一步深化了交流与合作关系。新冠疫情下，我们还开展了青少年交流等线上活动，不断拓展新的交流形式。

鸟取县拥有大型游轮停靠的国际港口“境港”，以及世界唯一以动漫名称命名的鸟取砂丘柯南机场和米子鬼太郎机场。疫情前，鸟取县开通了3个国际定期航班，分别通往上海、香港、首尔，向东北亚地区敞开了空中大门。鸟取县是美食之都，有二十世纪梨、西瓜等农产品，肉质全日本第一的鸟取牛等。

鸟取县致力于拓展海外市场，将产品销往世界各地。鸟取县拥有鸟取砂丘、大山等独具魅力的观光资源，全县范围内都可观测到绝美星空，是日本环境省公认的星空第一县。鸟取县拥有众多的美容温泉和保健温泉。

欢迎大家来到鸟取县！鸟取县和吉林省，鸟取县和东北亚地区，让我们风雨同舟，携手共进。

日本宫城县知事 村井嘉浩

受新冠疫情在全球蔓延的影响，现在无法实现自由往来，本县此次未能派团参会，请允许我在宫城向大家致以诚挚的问候。

自1987年宫城县与吉林省签订友好县省议定书以来，我县和吉林省在农业、医疗、文化、教育等领域，开展了长达30多年的交流合作。我曾三次访问吉林省，每次都受到大家的热情欢迎，同时也切身地感受到了吉林省发展的速度之快和规模之大。

2022年是中日邦交正常化50周年，同时也是本县和吉林省缔结友好县省协定35周年。为了迎接这一重要年份，双方正就开展纪念交流活动进行讨论，期待能够进一步深化交流合作。

今年是东日本大地震10周年，在大地震发生后，宫城县得到了中国政府和吉林省的大力支援和鼓励。面对新冠疫情的蔓延，在全球医疗用品短缺的情况下，本县和吉林省互捐抗疫物资，共渡难关。我认为，这些都得益于两县省经过多年积累建立起来的友谊和信任。借此机会向吉林省表示衷心的感谢！疫情结束之后，希望大家能来我县访问，看一看重建后的宫城县。

本次会议的主题为“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各方将就推进东北亚地区的整体发展和交流展开讨论。我热切地希望各地区能够以本次会议为契机，面向后疫情时代，在人才方面、经济方面进一步加深合作。

日本鸟根县知事 丸山达也

鸟根县自1994年6月与吉林省签署《友好交流备忘录》以来，在多领域接收研修员和留学生，并持续开展体育及文化交流活动。2019年，我们与吉林省举办了友好交流25周年纪念活动，让鸟根接触到了吉林省的文化，进一步加深了两县省的友好情谊。

今年是鸟根县和俄罗斯滨海边疆区签署友好交流备忘录30周年，为纪念备忘录的签署，我县计划举办“2021年日俄联欢音乐会”。此外，我县每年都会开展“东北亚交流之翼in鸟根”这一与中国、韩国、俄罗斯青年间的交流活动，今年将在线上举办。我们期待这些活动能进一步促进国际友好交往和跨文化交流。

位于鸟根县西部的滨田港，是我县以物流连接东北亚乃至世界的起点，也是地区产业不可或缺的重要基础设施。国际集装箱船定期从这里起航，通往世界各地。除该航线外，东北亚地区还拥有多个世界屈指可数的中枢港口，随着国际定期集装箱航线的完善，有望为地区今后的发展发挥重要作用。

鸟根县既保留有古老优良的日本文化，也拥有丰富的自然资源。此外，约四百年前建造的国宝“松江城”，以结缘神社而闻名的“出云大社”，世界遗产“石见银山”，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地质公园“隐岐群岛”，作为日本遗产的传统表演“石见银乐”等，都是鸟根县作为观光城市值得展示给世界的精彩之处。

一直以来，我们都致力于将鸟根打造成一片可以结缘的地方，取得了一定成效。

鸟根县连续五年在大型化妆品公司发布的“美肌县排行榜”上蝉联榜首，不仅拥有具有美肌效果的温泉，还有种类多样的美肌食材。鸟根县全年湿度较高，日照时间短，减少了紫外线对皮肤的伤害，具备经营美肌的最佳自然环境。因此，鸟根县将“美肌县鸟根”作为继“缘分之地”后的新宣传点，以“求结缘，来鸟根！想变美，来鸟根！”为宣传口号，致力于发展“美肌观光”。今后，我们也要让越来越多的人知道“美肌县鸟根”，并积极吸引国外游客。

待新冠疫情结束后，请大家一定要来“美肌县鸟根”看一看，让鸟根带给您一段放松身体、愉悦心灵的美好时光。

日本广岛县知事 汤崎英彦

广岛县位于日本西部地区的中心地带，四季温暖宜人，南临以~~皇罗棋布~~的岛屿风光而闻名的濑户内海，约有280万人口。

广岛县的重点产业包括汽车、船舶等运输设备制造业，以及钢铁、常用机械制造业等。2005年，广岛县重点企业马自达株式会社在中国吉林省成立了合资公司，与吉林省建立了紧密合作关系。

广岛县内集聚了众多环保及相关产业，为使这些环保技术与产品有效地服务于海外社会，广岛县与多国开展了密切的商务交流。未来，面对日趋严峻的全球性环境问题，广岛县愿与各位携手并进，攻坚克难。

广岛县还凭借濑户内海风浪平静、水质洁净的优势，大力发展战略养殖业，牡蛎产量居日本之首，占全日本牡蛎生产量的60%。为了让东北亚地区各国人民都能品尝到广岛牡蛎，广岛县将在今年秋季在中国举办的水产养殖博览会上参展，并通过多样化的流通渠道推动出口，届时欢迎大家品尝！

当前，受新冠疫情冲击，人员往来与经贸交流遇到了较大的阻力。待疫情结束后，欢迎大家做客广岛，深入交流，我们愿与大家一道，凝心聚力，共谋发展。

日本长崎县副知事 平田研

长崎县位于日本最西端，自古以来就是连接日本和中国的桥梁。在江户时代，曾是日本唯一对外开放的窗口，依托海洋在频繁的交流、贸易往来中得以发展至今。今天，我将介绍长崎县在海洋能源相关产业方面的举措。

在日本，为实现无碳社会，大规模应用可再生能源问题，备受瞩目。近年来，日本大力推进海洋可再生能源的开发。

长崎县是日本三面环海的海洋县之一。凭借最佳的地理优势培养发展了造船产业，现在我县正充分利用造船业积累的优秀技术，发展海洋能源产业这一新的支柱产业。

在海洋可再生能源中，海上风力发电的大规模应用、削减的成本、经济辐射作用令人期待。海上风力发电作为推动可再生能源成为主力电源，备受期待。

为了促进海洋能源相关产业的发展，我县着力开展了以下两方面工作。一是打造海洋能源相关的产业基地。重点构建海上风力发电项目在设计制造和维护方面的联合订货制及供应链。二是培养专业人才。通过产学研合作，我在长崎大学里成立了亚洲首个海洋能源专业人才培养基地“长崎海洋学院”。不仅是长崎县内，国内外诸多人士也前来学习。我们期待该学院发挥交流平台作用，取得更好的发展。

我县今后也将致力于将海洋能源相关产业作为新的支柱产业并大力推进。

日本秋田县副知事 猪田和三

本次会议主题是“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位于日本海沿线上的秋田县，在与对岸各国有建交流据点以及推动经济发展方面作了许多努力。

自1998年与吉林省签署经济交流备忘录以来，双方交流长达20余年。今年又迎来了与延边朝鲜族自治州达成合作关系的20周年。期间，致力于推动民间企业合作，创造双方合作商机。

受新冠疫情影响，去年很多活动未能如期举行。今年，秋田县的多家企业参加了“吉林·日本商品线上展览会”，双方交流在逐步地恢复。

秋田县有很多富有魅力的产业。例如，优质美味的“秋田小町”大米，以秋田杉为主的农林业，以尼普洛、TDK为代表的医疗、电子零部件产业，以及汽车、飞机等交通运输相关产业等。今后，秋田县将基于多年来与各国构建的信赖关系，活用线上交流，努力推进与各国企业间的对接。

我们所在的东北亚地区，是未来具有发展潜力的地方。而且，不仅与东南亚地区相连，还通过西伯利亚铁路与欧洲相连，是连接亚欧大陆和环太平洋地区的重要区域。

疫情造成很多限制，但我们必将迎来穿过这条漫长又黑暗“隧道”的时刻。我相信，当曙光再现的时候，东北亚将成为驱动世界发展的引擎，其运转将更快更有力。今后，我们将继续推进与各国的经济、旅游及人文交流。希望各方一如既往地给予大力支持。

韩国驻沈阳总领事馆总领事 崔斗锡

首先，诚挚祝贺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盛大召开。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已成为中国—东北亚博览会框架下重要的地方合作平台。特别是在新型冠状病毒蔓延全世界的困境下，按照2019年第一届会议约定，时隔两年，我们能够再一次相聚于长春市，意义更为深远。

本次会议的主题是“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就是利用连接东北亚地区的物流通道，使东北亚各国的市场和资源流通更加顺畅，进而构建起一个经济合作圈。围绕这个主题，进一步推动东北亚地区的地方合作，必须保持人员往来等国家间相互交流的持续性。在实行全方位防御新型冠状病毒的同时，必须迅速为企业打通互联网通道，充分尊重对各国的制度和程序，确保东北亚国家地方合作持续发展。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的召开，为东北亚六国地方政府搭建起了能够探讨合作的沟通平台。今后，东北亚六国地方政府应进一步建设能够实施实质性合作项目的常态化沟通框架，并在此框架下推动务实合作，实现新的飞跃。韩国驻沈阳总领事馆将给予必要的协助，推动东北亚各国打造常态化沟通机制。

扩大东北亚地方合作，应当通过经济、教育、文化、体育等软性交流，构建自下而上的合作发展模式。2022年2月，中国北京将举办冬季奥林匹克运动会。希望北京冬奥会能够成为进一步加强东北亚国家间交流合作的良好契机。

中国有句成语“有志者，事竟成”。今天，相聚于此的各位嘉宾胸怀深化东北亚地方政府间合作的共同意向。只要我们合心聚力，今天的会议有望成为推动东北亚地方政府乃至东北亚国家间共同繁荣发展的重要平台。

希望2023年第三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召开之时，人类能够彻底战胜新型冠状病毒，所有参会嘉宾都能线下欢聚一堂，共商大计。

#### 韩国江原道知事 崔文洵

首先，我与江原道人民共同祝愿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取得巨大成功。同时，祝贺东北亚博览会开幕、韩中城市馆开馆。尽管新冠疫情给交往带来了困难，但江原道企业仍积极地参与到本次活动中来。我将和江原道人民一同希望早日战胜疫情，进一步推动两地经济往来、增进文化交流。同时祝愿北京冬奥会取得圆满成功。

#### 韩国全罗南道知事 金完景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是一次探讨东北亚六国地方政府共同发展的盛会，在此，我谨对大会召开表示热烈祝贺。

自1996年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NEAR)成立以来，全罗南道始终致力于促进东北亚地区的和平与共同发展。目前，全罗南道已与中国和日本的15个地方政府建立友好省道关系和友好交流关系，在诸多领域保持密切沟通合作。

当前，气候变化导致的气温异常和粮食问题是世界面临的共同危机。海洋是粮食和资源的宝库，也是生产清洁能源的最佳场所。海洋因逐渐成为人类解决上述问题的关键而受到关注。因此，本次会议确定东北亚海洋经济合作为主题，具有更为深远的意义。

全罗南道位于朝鲜半岛西南端，是连接欧亚大陆与太平洋的门户，拥有韩国最丰富的海洋资源。全罗南道正着力保护海洋资源，并使之成为新的增长动力。

全罗南道正开展旨在保护海洋环境的“海洋垃圾零排放”运动。为广泛宣传海洋资源的价值，我们正在积极筹办2022年4月“莞岛国际海藻博览会”和“2026年丽水世界岛屿博览会”。全罗南道还宣布今年为“2050碳中和元年”，着力推进碳减排对策的实施。特别是全罗南道正计划建造世界规模最大、产能达8.2GW的海上风力发电场，共同带动全世界进入全球能源大转换时代。全罗南道正全力以赴申办第28届联合国气候变化框架公约大会(COP28)，希望诸位大力支持和帮助。全罗南道也将积极支持和帮助东北亚各国地方政府推进的各种项目取得成功。

希望本次盛会能够进一步拓宽东北亚地区间的合作、推动共同繁荣。希望我们早日攻克人类共同的难关——新型冠状病毒，希望东北亚地区的交流更加活跃。

#### 韩国忠清南道行政副知事 李弼荣

诚挚祝贺致力于推动东北亚地方交流合作、繁荣发展的“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在吉林省长春市盛大召开。向主办本次具有深远意义会议的吉林省人民政府致以深深谢意。同时，也向参加本次会议、致力于推动东北亚地方合作的各地方政府及机构代表致以诚挚问候。

忠清南道位于韩国国土的中心位置，一面临海，与中国隔黄海相望。拥有一个干净的海洋，不仅是忠清南道地方政府的课题，对于临海的地方政府乃至国家都是有益的事情。

忠清南道宣布2019年为“减少海洋垃圾”元年，并一直在推进海洋垃圾零排放工作。我们成立了海洋环境教育中心，通过培训和各类活动，提高居民的环境保护意识。同时，为解决垃圾回收人力不足问题，正在积极研发海洋垃圾回收机器人设备。

海洋是人类最后的堡垒。海洋温度的上升是导致现在气候异常的主要原因。忠清南道正致力于利用碳中和概念促进沿岸经济发展，计划通过使用太阳能设备处理海洋垃圾、回收再利用海洋塑料等减少碳排放，从而使沿岸地区达到气候变化与碳中和深度连接的理想状态。

根据联合国环境规划署(UNEP)2016年发布的报告推算，塑料污染每年给海洋经济造成损失高达80亿美元(约9兆4千亿韩元)。围绕“保护东北亚海洋气候环境的经济价值”这一主题，我想强调的是，让海洋“干净”起来，这需要我们通力合作，仅靠某一个地方政府或者某一个国家的努力是无法做到的。希望在不久的将来，成立一个可以合作的机构，为保护人类共同的海洋而努力。

2022年7月16日至8月15日，忠清南道将举办保宁海洋泥浆博览会。我们正积极努力，打造让游客们在干净的海洋泥浆中感受趣味的娱乐项目，届时欢迎大家前来体验。

再次热烈祝贺“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的盛大召开。

韩国庆尚北道经济副知事 河大成

衷心祝贺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顺利召开。本次会议以“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为主题，围绕海洋经济发展，探讨进一步深化东北亚地区地方间务实有效的交流合作，以及后疫情时期建设东北亚区域的全新未来。

1996年，在东北亚四国29个地方政府主导下，成立了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NEAR），其基本理念是“东北亚地区政府联合会成员在彼此平等互利的基础上，通过加强行政、经济、文化等一切领域的交流与合作，谋求地区的共同发展，为世界和平作贡献”。因此，联合会的基本理念符合本次圆桌会议“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的主旨，也有助于东北亚的共同繁荣。东北亚地区国家间利益关系复杂，必须从地方政府层面出发，通过发挥联合会作用、召开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等方式，积极打造和平、共赢的合作平台，构建共同经济圈。在此基础上，将第四次工业革命与海洋结合起来，创造新的价值。

现在，我们已进入整合人员、物流、产业、交通、旅游等资源的竞争时代。庆尚北道是欧亚大陆的起点，也是开启东北亚时代的据点。庆尚北道正着力推进港口、物流、旅游等产业的发展。

我提议，在深化地方政府间合作，将东北亚国家推进的项目与地方政府项目相结合的同时，进一步探索加强与上海合作组织（SCO）的合作、加强与亚欧会议（ASEM）及东南亚国家联盟（ASEAN）的联系，通过联合会会员国同时参与亚太经济合作组织（APEC）的方式，推动经济合作。

鉴于地理条件等因素，我们还应通过海洋新兴产业、旅游、休闲等多领域的交流，共同开拓市场，共谋互联互通，共建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

蒙古国驻华大使馆参赞 钢·苏布达苏仁

很高兴在美丽的吉林省参加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蒙古国政府一直高度重视并积极参与相关年度活动。

蒙中两国是山水相连的友好邻邦。两国高层互访频繁，全面战略伙伴关系在社会各界不断丰富和深化，为区域合作作出了重要贡献。

在新冠疫情特殊时期，蒙中两国关系保持持续发展，加强高层交往，深化互信与合作，加深民间相互了解，已成为邻国友好相处的典范。

中国不仅是我们最大的贸易伙伴，也是重要的投资来源国。蒙中两国间有巨大的互补性合作潜力。双方制定了将两国贸易额增加到100亿美元的目标，并共同努力加强疫情后的经贸合作。

中国政府重视与周边国家的关系，奉行“友好、真诚、开放、包容、共享合作”的政策，为进一步发展双边关系提供了重要契机。

加快推进蒙古国“草原之路”规划与中国“一带一路”倡议对接，是两国经济合作的重要领域。在此范围内，在基础设施、交通运输、农牧业、能源、旅游、人文等领域实施多种合作项目，必将深化蒙中两国的务实合作。

蒙古国奉行“和平、开放、独立、多元”的外交政策，同包括东北亚地区在内的世界各国致力于发展政治、贸易、经济、地方、文化、旅游等多领域友好合作。同时，一直积极参与国际和区域事务。

蒙古国政府制定了“远景2050”的长期发展政策，并正在积极探索将其与中国“十四五”规划和2035年远景目标有效对接，不断拓展双方在矿产资源、农业、能源、信息科技、旅游、物流等优先领域合作。特别是为经济多元化和增加非矿产品出口，蒙古国正在积极探索增加对中国出口肉类、牛奶和面粉等农产品。

东北亚地区国家是我们主要的外贸、经济和投资合作伙伴，蒙古国未来经济发展与该地区息息相关、紧密联系。蒙古国拥有较丰富的自然资源，计划在未来几年将这些资源投入经济循环，实施以这些资源为基础的工业发展项目，并大力发展能源、交通等重点领域重大基础设施建设，积极参与区域经济合作和一体化进程。

第十三届中国—东北亚博览会正在成功开辟中国与周边国家经贸合作的新途径和新机遇，相关活动及各界人士务实交流将为东北亚合作的发展作出重大贡献。

蒙古国中央省省长 登蒙赫巴特尔

首先，我谨代表蒙古国中央省人民，向为东北亚地区友好合作与繁荣发展而辛勤付出的各位代表、人士表示衷心感谢和诚挚问候！

中央省与吉林省多年来在农牧业、人才培养、青少年交流等多领域开展了富有成效的合作，友好关系不断深化。

2021年7月1日，在我省新建的国际机场开始投入使用，为全省经济社会发展创造了有利条件。此外，经过中央省将建设一条新的国际货运铁路线，这不仅有力地促进物流运输和服务业发展，同时能够提高人口居住密度、壮大新城市建设与产业、增加客运和贸易周转量，进一步提升招商引资实效。

目前，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在全球范围内蔓延，这对世界各国和地区的对外交往、国际合作、经济社会产生重大负面影响。在此背景下，我们共同应对这种困难局面，以线上方式参与和举办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必将极大促进各地方间的交流与合作。

对此，再一次感谢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吉林省人民政府为主办本届圆桌会议而做出的辛勤努力。

蒙古国达尔汗乌勒省副省长 巴扎布哈朗

首先，我谨代表友好的蒙古国达尔汗市人民对出席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的中国吉林省省长、东北亚各地方政府首脑以及全体参会代表致以诚挚的问候！

在此，感谢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吉林省人民政府以“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为主题的圆桌会议。

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作为促进东北亚区域合作繁荣的新平台，对地方友好关系与合作发展具有重要作用。

让我们进一步推动东北亚地方合作迈上新台阶，深化后疫情时期东北亚区域繁荣发展和海洋经济合作，努力创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互联互通机遇，共享经济发展成果、交流经验、谋划发展，共同实施经济新发展模式，共创东北亚地区地方合作美好未来。

最后，祝愿东北亚地方合作不断巩固和发展！

俄罗斯驻沈阳总领事馆总领事 谢尔盖·契尔年科

我谨代表俄罗斯联邦驻沈阳总领馆对受邀参加今天的圆桌会议，向主办方表示感谢，同时向所有与会者致以问候。

总领馆高度重视吉林省与俄罗斯各联邦主体的全方位合作。吉林省已与滨海边疆区、哈巴罗夫斯克边疆区、伏尔加格勒州、利佩茨克州和马里埃尔共和国签署了合作协议。吉林省8个市与俄罗斯伙伴缔结了友好城市关系。目前，双方交流涵盖地区正逐渐扩大。今天，除了吉林省传统的合作伙伴外，堪察加边疆区、阿尔泰边疆区以及马加丹州的领导人也参加此次活动。

近年来吉林省对俄经贸联系不断加强。数据显示，2021年前8个月双边贸易额达到了51.77亿元，较去年同期增长83%。俄罗斯是吉林省能源、海产品和木材的主要供应地。中国企业对俄主要出口机电设备、轻工业产品、食品等。

吉林省境内现有两个对俄边境口岸：马哈林诺—珲春铁路口岸和克拉斯基诺—珲春公路口岸。口岸的运营不仅对中俄双边交流发挥重要的作用，而且对促进东北亚国家间多边联系也有着重要的意义。中俄物流运输链日益完善，“滨海”国际运输走廊构想对经远东港口开展中国至东北亚国家间的过境货物运输进行了规划。

需要强调的是，俄罗斯有意进一步发展与所有东北亚国家的关系。9月2日至4日，第六届东方经济论坛在符拉迪沃斯托克举办。共有来自世界58个国家的约4千名代表参加了论坛。来自中国、韩国、日本的代表团最具代表性。俄罗斯为远东地区的外国公司设立了跨越式发展区，并实施特殊的税收政策，同时符拉迪沃斯托克自由港也在积极运营。

总领馆愿意协助有关各方开展对俄合作。祝愿所有与会者在东北亚博览会期间工作富有成效！

俄罗斯堪察加边疆区州长 弗拉基米尔·索洛多夫

我谨代表堪察加边疆区政府向出席本次会议的各位嘉宾致意，并感谢大家致力于推进东北亚地方合作。

堪察加边疆区政府高度重视建立和深化国际经济合作，重点发展与亚太地区国家的国际合作。中国无疑是重要的合作伙伴。

近年来，堪察加边疆区与中国的合作蓬勃发展，关系日益密切。在经贸合作领域，中国是堪察加半岛外销产品的主要消费者之一。仅在去年，堪察加半岛与中国的对外贸易额占本地区贸易额的40%。水生生物产品是对华出口的重点领域，未来这也将是我们的主要合作方向。

近年来，堪察加半岛更多地吸引了来自中国的游客。2015年到2019年，来自中国的游客数量增加了1倍以上。在亚太国家中，中国已成为堪察加半岛第一大游客来源地。

今天，我诚挚邀请所有与会者访问堪察加半岛，参观这里独一无二的风景，体会堪察加半岛雄伟的大自然之美。俄罗斯联邦总统普京先生称堪察加半岛为俄罗斯和世界的明珠。我们的首要任务就是确保它的美丽得到保护。我们已经制定非常具体的投资项目规划，正推动堪察加半岛旅游业快速发展。

堪察加半岛生态旅游拥有广阔的发展前景。我们愿意与中国同仁分享在自然保护区发展旅游业的经验，同时欢迎来自世界各地的游客访问堪察加。

期待今天的会议为推动未来合作提供助力。

俄罗斯滨海边疆区第一副市长 维拉·谢尔比娜

谨向出席第十三届中国—东北亚博览会框架下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的嘉宾致意。

滨海边疆区与中国、韩国和日本等国家的对外贸易每年保持在70%以上。与此同时，我们重视与所有邻国的互利合作，并与所有潜在的合作伙伴开展建设性对话。

尽管东北亚各国各具特点，但都被海洋连接在一起。海洋不仅为我们提供了海洋运输的条件，而且还慷慨地与人类分享生物和矿产资源。

保持国际贸易往来最重要的经济产业之一是交通运输业。滨海边疆区拥有所有主要交通运输类型，涵盖海运、铁路、公路和空运。它们保障了边疆区内的货物运输，同时连接了滨海边疆区和毗邻地区、俄罗斯全境和亚太地区国家。

“滨海1号”、“滨海2号”国际运输走廊途经符拉迪沃斯托克自由港，将中国吉林省、黑龙江省与滨海边疆区的海港相连。在民用造船行业，滨海边疆区的造船和修船企业与中国、韩国的合作伙伴已开展了多年合作。

一直以来，滨海边疆区海事教育高校与中国、韩国和新加坡的知名学府在科研实践和海洋学研究领域保持交流。

2014年起，水产生物电商项目不断发展。东北亚各国企业已表现出对使用电商交易平台的兴趣。

利用符拉迪沃斯托克自由港和滨海边疆区跨越式发展区的优惠政策，滨海边疆区的渔业公司正与亚太各有关企业开展合作。

旅游合作是海洋合作的重要组成部分。滨海边疆区已与亚太地区最大邮轮运营商建立了稳定的合作伙伴关系。

我相信，在疫情限制解除后，邮轮将再次连接起符拉迪沃斯托克与日本、韩国和中国的海港。我们将尽一切可能恢复旅游客量和货运量。

我们希望东北亚国家各地区更加积极地恢复因疫情受损的国际经贸往来。同时，为了共同福祉，我们应该结合自身生产技术发展潜力，建立起新的合作关系。

第十三届中国—东北亚博览会为进一步拓展务实合作提供了助力，为与会各方送来了拓展经贸投资合作的“东风”。滨海边疆区愿意采用新的合作形式，与各方长期保持对话交流。

俄罗斯马加丹州副州长 安德烈·科利亚金

很荣幸参加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首先，我谨向《俄中睦邻友好合作条约》签署20周年表达祝贺。

中国是俄罗斯全境和马加丹州的重点合作伙伴之一。过去五年，科雷马地区（马加丹州主要工业区）对华贸易额增长116%，达到2.18亿美元，为双方互利合作奠定了坚实的基础。这些都得益于俄中两国山水相邻的睦邻友好关系。

当前，中方企业正积极投资参与马加丹地区的贵金属矿床开发，同时参与水生生物资源领域的项目合作，着力开展鱼类产品贸易及大型设备的生产供应。我相信该合作领域具有广阔的发展前景。

今年是马加丹州成立68周年，这里的工业发展始于1928年，享有俄罗斯“黄金宝藏”的美誉。马加丹地区作为俄罗斯采矿业最发达的地区，白银开采量和黄金探明储量居首位，黄金开采量位居第二。

作为远东重要组成部分的科雷马地区，俄罗斯总统已宣布将对其实施大规模开发计划。这里优越的投资环境和优惠政策将为商业发展创造条件。马加丹州将敞开大门，欢迎各界人士洽谈合作。

预祝此次大会圆满成功。

俄罗斯阿尔泰边疆区政府副主席 维塔利·斯图萨利

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是沟通交流、开展务实合作的重要平台。借此机会，谨向各位嘉宾简要介绍阿尔泰边疆区。

阿尔泰边疆区位于西西伯利亚南部，是俄罗斯快速发展的地区之一。这里拥有国际航空航线，公路交通与蒙古国、哈萨克斯坦相连，经西伯利亚大铁路与中亚相通，农业、食品工业、生物医药、机械制造、化学工业、林业、轻工业和旅游业是边疆区的主要经济产业。优越的营商环境和公共交通基础设施的完善，为这里的经济发展提供助力。阿尔泰边疆区作为俄罗斯农业发达地区之一，农产品和食品对外出口额在国内居于领先地位。休闲疗养产业的发展潜力、适宜的气候和丰富的历史文化遗产景观为这里发展各类型休闲娱乐和旅游项目提供了机遇。

阿尔泰边疆区的经济地理位置决定了我们重点推进与亚太地区的国际合作。近年来，边疆区企业对发展中的亚洲市场关注度越来越高。边疆区政府也高度重视与中国、蒙古国、韩国和日本开展多边合作，并积累了成功经验。在经贸、教育、旅游、文化和体育领域，我们同吉林省、蒙古国西部省份、韩国江原道等东北亚地区有共同的合作需求。阿尔泰边疆区愿同东北亚各地区建立联系，培养构建互利合作的伙伴关系。

最后，谨向吉林省人民政府举办此次活动表示衷心感谢。此次会议必将助力东北亚地区的共同发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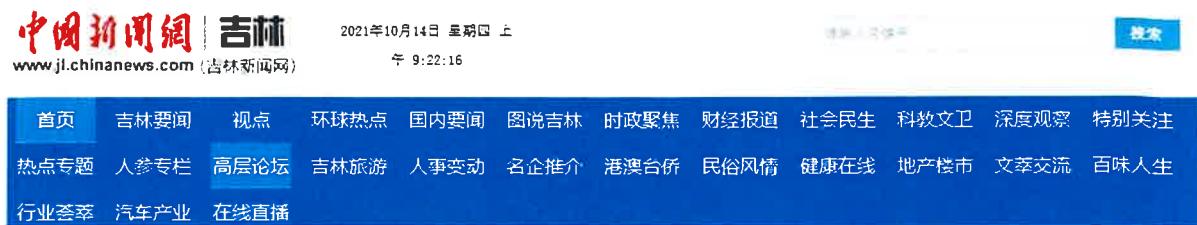
[http://jlrbszb.cnjiwang.com/pc/paper/layout/202109/26/node\\_02.html](http://jlrbszb.cnjiwang.com/pc/paper/layout/202109/26/node_02.html)

## ○ 주요 내용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김옥채 사무총장, 지린성 성장,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 TCS 사무차장, 천진시 부시장, 주선양 북한총영사,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나선시인민위원회위원장, 주선양 일본총영사관 부총영사, 둗토리현 지사,

미야기현 지사, 시마네현 지사, 히로시마현 지사, 나가사키현 부지사, 아키타현 부지사, 주선영 한국총영사관 총영사, 강원도지사, 전라남도 지사, 충청남도 부지사, 경상북도 부지사, 주중 몽골대사관 참사관, 투브 아이막 지사, 다르항오울 아이막 부지사, 주선양 러시아 총영사관 총영사, 카자카주 지사, 연해변경주 제1부지사, 마가단주 부지사, 알타이변경주 부지사 등 연설 내용

<중국신문넷 지린채널에 김옥채 사무총장의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 원탁회의 축사 소  
개 기사 게재: 2021.10.8>



## 【泰国京华日报】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举行 打造“海洋经济合作圈”

发布时间: 2021年10月08日 10:26

泰国京华日报刊载中新社文章《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举行 打造“海洋经济合作圈”》，原文如下：

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 22 日在吉林长春举行。与会各方希望打造一个“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推动东北亚区域地方合作朝着更高质量方向前进。

中国、朝鲜、日本、韩国、蒙古国、俄罗斯等国政府官员参加了当天的会议。会议以“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为主题，各方围绕经贸投资、互联互通、海洋经济、能源环保、文化旅游等多领域合作交换了意见。

吉林省省长韩俊作主旨发言时表示，各方要围绕海洋科技、海洋开发、海洋保护等相关领域展开务实合作，携手开发珲春海洋经济发展示范区，打造海洋合作平台，推动基础设施互联互通，推动开通航线拓展容量、测试航线顺利通航、停滞航线尽早复航。

韩俊说，吉林省正在推进“滨海 2 号”珲春至俄罗斯扎鲁比诺港铁路及公路建设改造，为沿边沿线城市架设开放合作桥梁。

俄罗斯滨海边疆区第一副州长维拉•谢尔比娜说，“滨海 1 号”“滨海 2 号”国际运输走廊途经符拉迪沃斯托克自由港，将中国吉林省、黑龙江省与滨海边疆区的海港相连。海洋运输需要船舶，滨海边疆区的造船和修船企业与中国、韩国的伙伴已经合作多年。

维拉•谢尔比娜还提出将旅游合作列为海洋合作的重要组成部分。她说，滨海边疆区已经与亚太地区最大邮轮运营商建立了稳定的合作伙伴关系，相信疫情限制解除后，邮轮能再次连接起符拉迪沃斯托克与日本、韩国和中国的海港。

日本长崎县副知事平田研表示，长崎县是日本屈指可数的三面环海的海洋县之一，曾是日本唯一对外开放的窗口，凭借地理优势培养发展了造船业，现在该县正充分利用造船业积累的技术发展海洋能源产业这一新的支柱产业，希望与会各方能前来洽谈合作。

韩国全罗南道也对发展海洋能源产业颇感兴趣。全罗南道知事金瑛录介绍，目前，全罗南道正在计划建造世界上规模最大的海上风力发电场。

韩国驻沈阳总领事馆总领事崔斗锡认为，扩大东北亚地区国家之间的合作，应当以东北亚地方政府为主导，通过经济、教育、文化、体育等软性交流，构建自下而上的合作发展模式，希望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发展成为自下而上的合作平台，进而推动中央政府之间的合作。

东北亚地区地方政府合作联合会秘书长金玉彩介绍，该联合会自1996年由中、日、韩、俄的29个地方政府共同创立以来，一直致力于通过地方政府间合作，实现东北亚地区共同繁荣，现如今，联合会已经拥有79个会员，成长为名副其实的国际化多边合作交流平台。

“建设海洋经济圈仅靠一个国家或一个地区的力量是无法实现的，只有国际合作才能不断克服挑战，实现可持续发展。”金玉彩说，想要发展可持续的、面向未来的合作伙伴关系，仅单纯依靠商品、资本、服务等物质层面交流是不够的，还需要共同努力打造真诚沟通与交流的平台。

当天，与会各方还在上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长春共识》基础上，达成了《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长春倡议》，相约不断加强海洋经济等方面的合作，不断加强互联互通，进一步推动贸易自由化、便利化等。(完)

(来源：中国新闻网)

<http://www.jl.chinanews.com.cn/jwmtsjl/2021-10-08/172646.html>

## ○ 주요 내용

- 태국 경화일보에서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 개최, 해양경제협력권 조성”제목으로 중국신문사의 기사를 게재함
  -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가 9월 22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개최됨.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대표들은 “시장 자원 연계를 통한 동북아 해양경제협력권 공동 건설”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김옥채 사무총장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지역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에서 29개 광역 지방정부가 참가하여 출범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79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동북아 지역의 명실상부한 다자간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해양경제권 조성 사업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국제적 공조와 협력만이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선 상품, 자본, 서비스와 같은 물질적인 측면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한 소통과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함.
  - 러시아연해변경주 제1부지사, 일본 나가사키현 부지사, 한국 전라남도 지사, 주선양 한국총영사 연설 내용 소개

<글로벌경제신문넷에 김옥채 사무총장의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 원탁회의 축사 소개  
기사 게재: 2021.10.12>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Global Economic Guide website. The header features a logo with a blue circle and the text '全球经济导报网'. Below the logo is a horizontal navigation bar with categories: 财经 (Finance), 产经 (Industrial Economics), 金融 (Finance), 股市 (Stock Market), 文化 (Culture), 艺术 (Art), 公司 (Company), 区域 (Region), 人物 (Person), 公共 (Public), 旅游 (Tourism), 美食 (Food), 策略 (Strategy), 专栏 (Column), 生活 (Life), 汽车 (Automobile), 房产 (Real Estate), 城市 (City), 收藏 (Collection), 钱币 (Currency), 邮票 (Postage Stamp), and 古玩 (Antiques). To the right of the navigation bar is a search bar with the placeholder '新闻搜索' (News Search) and a magnifying glass icon.

您的位置: 首页 >产经 >

## 从“长春共识”到“长春倡议” 深耕蓝海新航程

2021-10-12 09:11:06 来源: 国际商报

9月22日，在吉林长春举办的第二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上，《长春倡议》获得与会各国地方政府通过。这是本次会议各方围绕共同加强东北亚地区地方政府合作交流、互学互鉴、经贸往来以及推动地区和平稳定、繁荣发展等问题深入探讨，形成的成果性文件。

两年前的8月22日，首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也是在长春召开，220余人参加会议，达成并通过了《长春共识》，为增进东北亚地区各方的交流与合作及共同发展起到了积极作用。

从《长春共识》到《长春倡议》，见证的是吉林在东北亚地方合作中发挥的重要作用，以及作出的重要贡献。

“2019年首届东北亚地方合作圆桌会议成功举办，推动形成了东北亚区域地方合作新的平台和机制。”吉林省省长韩俊在本届圆桌会议致辞中表示，两年来，各方开展多层次交流互访，拓展国际友城“朋友圈”，推动开通海运陆运新航线，高效落地合作项目，积极开展体育文化交流活动。特别是2020年抗击新冠肺炎疫情以来，各方守望相助、共克时艰，创新沟通方式，互赠防疫物资，生动体现了“山川异域、风月同天”的美好情谊。

韩俊进一步指出，东北亚地区六国人口占全球人口 23%，国内生产总值占全球经济总量 19%，交往历史悠久，经贸合作频繁，是全球最具活力、最具潜力、最具影响力的区域之一，也是世界经济重要增长引擎。期待与会各方共同努力，增进互信交流，打造和谐幸福的东北亚；深化区域合作，打造互利共赢的东北亚；深耕海洋经济，打造互联互通的东北亚；致力互学互鉴，打造文化融合的东北亚；完善长效机制，打造紧密合作的东北亚。

对于东北亚地方合作的重要性，全国对外友协副会长林怡在本届圆桌会议致辞中强调，东北亚各地方应团结应对疫情，共同推进区域经济持续复苏；深化互利合作，共同推进区域发展与繁荣；加强人文交流，共同推进区域人民“民相亲、心相通”，携手开创东北亚区域合作更加美好的明天。



《长春倡议》提出，各地方以本次会议为新契机，继续秉承平等互信、包容互鉴的理念，推动宽领域、多层次的海洋合作，携手打造开放合作新平台，共同驶入深耕蓝海新航程，共同创造后疫情时代东北亚区域海洋经济美好未来。

《长春倡议》还提出，各地方聚力打造高效便捷的区域互联互通网络，共同推动通道“硬件”设施建设，合力攻坚制约瓶颈，持续加大区域海空航线及路网密度，支持现有各类物流网络常态化稳定高效运行，共同为实现东北亚区域海洋经济合作圈互联互通创造有利条件。

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秘书长金玉彩表示，仅依靠一个国家或一个地区的力量无法实现建设海洋经济圈的目的，只有依靠国际合作才能不断克服挑战，实现可持续发展。

本届圆桌会议采取“线下+录播”方式，主题为“连通市场资源，共同打造东北亚海洋经济合作圈”，来自包括中国、日本、韩国、俄罗斯、蒙古国、朝鲜在内的东北亚六国代表参加，围绕共同加强东北亚地区地方政府合作交流、互学互鉴、经贸往来以及推动地区和平稳定、繁荣发展等问题进行深入探讨。

<http://www.ceeh.com.cn/chanjing/2021-10-12/70863.html>

## ○ 주요 내용

- 2019년 8월 22일 제1회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에서 채택된 “창춘 컨센서스”와 올해 9월 22일 제2차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에서 채택된 “창춘창의” 모두 지린성이 동북아 지방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함.
- 지린성 한진 성장의 연설 내용과 “창춘창의” 내용 소개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김옥채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해양경제권 조성 사업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국제적 공조와 협력만이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함.